■ 산자부 주최 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 가보니

공기업 부스만 '북적'…중소기업 외면 여전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26일 오후 2시께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에 에너지 공기업 부스(왼쪽)들은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반면, 같은 시각 일반 기업 부스는 한산한 모습이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에도 여전히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센터 81개 기업 참여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제 영향
대기업 부스마저 한산
홍보 부족…청년 대부분 몰라

"인문계열을 졸업해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술직 위주로만 뽑고 있네요. 취업이 늦어져 갈수록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이 더 커집니다."

26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 행사장은 교복을 입은 지역 고등학생들로 붐볐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도 속속 행사장을 찾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에 정부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부산에 이어 광주, 서울(27일)에서 열리는 릴레이 형태의 박람회로, 광주에서는 8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19세 전국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은 7.6%, 전남은 9.9%였다. 전년 동기 대비 광주는 0.8%포인트, 전남은 1.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주 전체 실업률이 2.4%, 전남 2.3%인 것과 대비하면 청년실업률은 각각 3.2배와 4.3배가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도 구직현장에는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정기업의 부스에는 발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리는 반면, 소규모 기업에는 단 한 명의 구직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부스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에너지 공기업들이었다. 한전을 비롯한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등 공기업 부스에는 행사가 시작되자 구직자들이 몰렸다. 기존 대기업 부스에 사람들이 몰렸던 것과 달리 오히려 이날 대기업 부스들은 한산했다.

이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인기에는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민지(광주여상·3년)양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늘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공기업 입사가 더 쉽다고 판단했다"며 "아무래도 급여와 복지, 안정성까지 갖춘 공기업에 사람들이 몰리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지역 중소기업 부스들은 여전히 신입직원 뽑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로 눈높이가 다른 탓에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기업과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미스매치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전남 소재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벌써 1시간째 문의를 해오는 구직자가 없었다"며 "인력난을 겪으며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기업과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관계 부처를 질타한 이후 급작스레 행사가 마련돼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거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까지 이뤄지던 채용박람회와 달리, 현장채용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구직자 안모(여·25)씨는 "채용계획 일정이나 기업소개, 면접 팁(TIP)등은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며 "홍보도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은 행사소식도 모르고 있는데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57.65 (+6.13)
- ⬇ 금리 (국고채 3년) 2.26% (-0.02)
- ⬇ 코스닥 874.43 (-0.35)
- ⬇ 환율 (USD) 1073.40원 (-5.60)

광주은행 청소년 50명에 교복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학기를 맞이한 우리 지역 결손가정 청소년 50명에게 교복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최영철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여학생 2명을 본점으로 초청해 교복 후원 증서를 대표로 전달하고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학생들이 보다 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은행장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송종욱 은행장은 "교복을 선물 받은 50명이 새 교복을 입고 즐겁고 건강하게 학업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어촌공사 사장에 최규성 전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제9대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

전북 김제 출신인 최 신임 사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기간 쌀 목표가격제 개선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방지책 마련,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사업 확정 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광주상의 회장 출마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이 차기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출마키로 했다.

26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정창선 회장은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상의회장 '추대 후보'로 거론됐던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는 불출마 하고, 정 회장을 '추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상의 회장은 상의가 지역 기업들의 구심체로써 상공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의는 다음달 20일 일반의원(80명)과 특별회원(1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을 뽑는다. 앞서 12일에는 회장 선출 권한이 있는 일반의원과 특별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의원, 특별의원에 입후보하려면 3월 3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성장성 높은 中企에 '이익공유형 대출'

중기진흥공단 1100억 규모 저리 지원…희망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올해 11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뒤 이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영업이익과 연동해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기업은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이다.

금리는 고정이자 0.5%에 성과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년간 영업이익 합계액의 4%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 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 한도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해 원금의 20%를 넘지 않게 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넷뱅킹 대출 하루 평균 9900건

절차 간편한 케이·카카오뱅크 출연에 전년보다 4배 급증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으로 대출신청이 간편해지며 지난해 인터넷뱅킹 대출신청 건수가 4배나 늘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대출신청 건수는 9900건이었다. 전년 2400건에 비해 304.0%(4.1배) 불어난 것이다.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대출신청 금액도 하루 평균 1194억원으로 1년 전(399억원)보다 199.1%(3.0배) 늘었다.

대출신청 건수, 금액의 연간 증가율은 관련 통계 편제 이래 최고였다. 인터넷뱅킹 대출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 한은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꼽았다. 지난해 4월, 7월에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보다 대출 절차가 간편하다. 이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신청이 몰렸다. 인터넷뱅킹의 하루 평균 총 이용 건수(조회 서비스, 자금이체, 대출신청)는 9491만건으로 8.8% 늘었다. /연합뉴스